

비행과 여성 청소년

김 현 실

경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I.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은 이제 청소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인에게는 또 다른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아동 및 청소년기는 비행행동 그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여러가지 발달상의 문제와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더불어 발생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다(Johnston et al, 1985).

청소년기는 인생의 격동기로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과 갈등 속에서 자아의식을 확립하여야 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충동과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주위환경과 심한 마찰을 보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의욕과 호기심이 절정에 달

하는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므로 주어진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부적응 양상을 보여 주는 경우가 허다하며 아직 미성숙에서 오는 의존성과 호기심, 도전심과 친구들의 권유나 동질성의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비행행동에 가담하게 된다. 특히 여학생의 음주 및 약물남용, 학원폭력과 같은 비행행동은 그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여학생 자신과 우리사회의 인식 부족은 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비행, 범법행동에는 경각심을 갖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처하는 반면 여학생의 비행행동에는 우리사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다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80)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조폭화, 흉악화될 뿐 아니라 저 연령화, 성별 동등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과거보다 어린 나이에 비행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며 과거보다 여학생 비행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추세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중생 폭력 씨클 일진회의 만행은 이제 폭력이 더 이상 남학생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으며(영남일보 27면, 1999년 4월 7일), 여학생의 음주, 흡연 또한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신문지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지역뉴스(대한매일), 1999년 5월 22일).

*경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특히 본 연구자의 청소년 임상면담 경험을 통해볼 때 여학생의 비행은 성적부도덕과 연결되어 있어 비행에 발을 담근 여학생은 결국 가출, 윤락, 매춘, 낙태, 미혼모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화장과 몸에 꼭 맞는 의상착용은 청소년기 여학생이 자신을 성적대상자로

보이게 하는 이른바 롤리타 신드롬(블라디미르 나보코의 소설 '롤리타'에서 어린 여학생 롤리타는 나이 많은 대학교수와 애정행각을 벌인다)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매체는 광고나 드라마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기성세대의 도덕성 몰락은 이와 맞물려 원조교제, 여학생 매춘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남학생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여학생들만의 성관련 비행행동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분명 우리사회가 주시하여야 할 문제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수립이 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외의 청소년 비행관련 연구경향은 주로 남학생의 비행·범죄행동의 원인요인 분석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있을 뿐(Haapasalo & Tremblay, 1994; O'Donnell et al, 1995; Zimmerman et al, 1995; Pine et al, 1996; Cox, 1996; Paris et al, 1996; Schukit & Smith, 1996; Capaldi et al, 1996; Raine et al, 1996; Modestin et al, 1996; Spingarn & DuRant, 1996; Briggs & Hawkins, 1996; Brennan et al,(1997) 여학생 대상 비행 관련 연구(Palinkas et

al, 1996; Draucker, 1997; Esperat & Esparza, 1997; Luster & Small, 1997; Daley & Argeriou, 1997)는 실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학생 비행행동의 발현율, 비행행동 유형, 관련 변인 및 비행행동화 과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개관하여 여학생 비행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증진과 함께 여학생 비행행동 예방 및 중재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II. 여성 청소년 비행의 발현율

미국의 경우 성인 집단의 폭력·범죄율은 지난 5년간에 걸쳐 다소 하강하였으나 청소년비행 및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Fox, 1996; Sickmund, Snyder, & Poe-Yamagata, 1997)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무기소지의 자유와 갱 집단의 증가가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상승을 설명해주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Spergel, 1995). 이러한 청소년 비행 및 폭력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남성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성 청소년과 비행과의 관계는 거의 무시되

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여성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행동이 서서히 연구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e.g., Campbell, 1991; Chesney-Lind, 1997; Curry, 1998; Deschenes & Esbensen, 1999b; Fleisher, 1998; Joe & Chesney-Lind, 1995; Miller, 1998a, 1998b)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 비행 청소년은 '남자아이 같은 모습'이나 '(남자를 유혹하는)성적대상자'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지난 10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비행 청소년의 특질과 발현율, 그들의 비행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e.g., Bjerregard & Smith, 1993; Chesney-Lind, Sheldon, & Joe, 1996; Esbensen & Winfree, 1998). 그러나 연구 방법론상의 문제로 여성 청소년 비행의 발현율은 연구마다 다양하였으며(e.g., Curry, Ball, & Fox, 1994; Esbensen & Huizinga, 1993; Goldstein & Glick, 1994; Klein & Crawford, 1995) 대부분 한자리 숫자로 보고되고 있어 여성 청소년은 단지 비행집단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또는 특별한 성 관련 비행행동(예, 남자 유혹하기, 남자끼리 싸움 붙이기 등)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즉 Curry등(1994)의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 비행이 전체 비행 중 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Goldstein 과 Glick(1994) 또한 남성 대 여성 청소년 비행의 비율은 대략 20 : 1 정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 비행이 전체 비행 중 20% 이상이라는 보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Cohen등(1995)은 여성 비행 청소년의 비율을 21%로 보고하고 있으며, Esbensen 과 Huizinga(1993)는 갱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 비행 청소년의 비율이 20 - 46%에 이른다고 보고함으로써 여성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김현실, 2001)에서는 한번 이상 비행을 저질렀다고 응답한 여성 청소년이 8.8%인 반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는 91.2%가 한번 이상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 청소년의 비행 발현율이 여성 청소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Johnson, 1987)들은 여성 청소년의 비행 발현율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낮기는 하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Ⅲ. 청소년 비행행동의 성별차이

다음에는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여성 비행 청소년의 역할이 남성 청소년 비행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통념상 여성 청소년 비행 및 폭력행동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집행기관의 자료에서도 여성 비행은 남성 비행보다 발현율이 낮으며 보다 덜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 여성의 폭력범은 14.6%인 반면, 재산범은 26%로 보고되고 있다 (Department of Justice, 199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비행 청소년의 비행 발현율이 낮기는 하나 결코 덜 폭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Huizinga, 1997). 대중매체를 통한 최근의 보고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비행이 과거보다 더 폭력적이며, 더 범죄지향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uizinga와 Esbensen(1991)은 여성비행

의 폭력성이 보다 심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며, Spergel(1995) 또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 반면 Chesney-Lind 등(1996)은 여성 청소년의 구금율이 남성 청소년의 구금율에 필적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적 도구로서의 여성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역할 역시 모순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Miller, 1998a).

일반적으로 연구자들(Moore & Arthur, 1989)은 청소년 비행행동을 크게 사태성 범죄와 비사태성 범죄로 나누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태성 범죄란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및 성관계 등과 같이 행위자의 연령 때문에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비사태성 범죄란 경범죄로부터 강도, 폭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모든 범법행위를 뜻한다. Thornton(1982)은 사태성 비행(사회적 비행)은 전통적으로 여성과 연관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가출,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성관계와 같은 사태성 비행행동은 여성 비행 청소년에게는 스스로 “여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항상 남성에게 제한된 것으로 보던 공격적 비행행

동 유형에도 여성이 두드러지게 가담하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Haskell과 Yablonsky(1970)는 지난 20년에 걸쳐 강도, 자동차 절도와 같은 강력 범죄에 여성 참여의 증가율이 75% 이었으며, 반면 이에 대한 남성의 증가율은 40%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관습적인 성 역할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소녀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역할로 사회화되어야 하며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성역할은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소녀들이 전통적으로 소년들이 하던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됨으로써 이들은 보다 자기 주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Oakley(1972)는 또한 남성과 여성의 범행 양상의 차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문화적 유형과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성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유형과 범죄의 정도는 양성의 성별 인격과 성별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볼 때 만약 여성의 성적 특성이 보다 남성적이 된다면 여성은 남성의 비행 행동과 유사한 비행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McClelland, 1982)보고를 중심으로 볼 때 아직까지 여성 청소년 비행은 주로 가출, 성범죄, 야간통행 금지위반과 같은 사태성 비행이 많은 반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재산범이나 폭력범죄로 수감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실, 2001)에서는 사태성 범죄로 구성된 반사회적 행동과 비사태성 범죄로 구성된 공격행동 유형 모두에서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비행행동 또한 남성 청소년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사회적 행동 범주에 포함된 여성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 관계나 이성접촉 또한 남성 청소년의 성폭행, 강간, 성범죄와 같은 문제행동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은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 청소년의 비행이 여성의 성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태성 범죄가 월등히 높았다는 외국의 일부 연구(Thornton, 1982)와는 대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 비행 청소년이 비행행동에 가담하는 동기가 남성 비행 청소년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주제 또한 많은 연구

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연구문제였다(e.g., Bjerregard & Smith, 1993; Esbensen et al., 1993; Joe & Chesney-Lind, 1995; Winfree, Backstrom et al., 1994). 많은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보호로부터 정서적 욕구 충족(예, 소속욕구의 충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집단에 가담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Esbensen, Deschenes, & Winfree, 1999).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비행집단에서 충족시키고자하는 정서적 욕구는 다를 것으로 보는데 여러 연구에서는 (Campbell, 1991; Chesney-Lind, Sheldon, & Joe, 1996; Fleischer, 1998) 일반적으로 여성 청소년들은 친밀한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위해 비행집단에 가담하게 된다고 한다. 즉 여성 청소년은 친밀감이라는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비행집단에 가담하는 반면, 남성 청소년은 집단행동에 더 연루되어있다고 한다.

집단 비행행동 경험에 대한 성차를 비교한 최근 연구(Esbensen et al., 1999)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보다 덜 폭력적이며 덜 불법적이었다는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들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 비행은 발현 빈도가 남성 청소년 보다 낮을 뿐 남성 청소년이 행하는 비행행동유형을 거의 모두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자존감에는 성차를 보였는데, 즉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 보다 사회적 고립감, 자존감 및 비행집단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욕구충족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보다 높은 사회적 고립감과 보다 낮은 자존감을 보였는데 이것이 여성 청소년의 비행행동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비록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과 비행집단의 동일한 구조적 측면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의 비행행동 경험의 질적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다른 환경(예, 학교, 직장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은 같은 방식으로 조직 환경을 설명하나 이러한 환경에서의 그들의 반응과 체험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발달 관련 문헌을 볼 때 여성 비행 청소년과 남성 비행 청소년간의 이러한 차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초등학교 운동장(Thorne, 1993)이나 또래관계(Thorne & Luria, 1986), 집단역동(Lees, 1993) 등에서도 이미 명백한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 많은 소녀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 내에서 소년과 소녀의 역할이 보다 유사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owker, Klein, 1983.) 이와 같이 갱의 일원이 됨으로써 실제 비행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비행행동을 하는 사람이 실제 갱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 청소년의 집단 활동이 그들의 비행행동 발현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조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혼돈의 시기(과도기)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 뿐 아니라 자아의 출현, 부모의 권위에 대한 저항, 사회나 학교에서의 책임감 증대 및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는 극심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Swanson et al, 1992). 이 시기 일부 청소년들은 이 결정적인 발달시기 동안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정신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여로 우울증이나 자살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다

(Aneshensel & Huba, 1984). 또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급격히 변화하는 경험과 관련된 불편감을 다루기 위해 부적응적 대응행동(예, 약물남용)을 보일 수도 있다(Kandel et al, 1991; Miller, 1986).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 성향은 다양한 비행행동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울 정서에서 비롯된 자살시도나 약물의존 등은 명백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 자살사고 및 약물 남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다는 일부 연구보고가 있다(e.g., Patton et al, 1996).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Deykin & Buka, 1994; Nolen-Hoeksema & Girgus, 1994) 자살사고 또한 청소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erman & Jobes, 1991; Kinkel et al, 1989; Rich et al, 1992; Simons & Murphy, 1985) 우울증과 자살사고 및 약물남용간의 관련성 또한 남성보다 여성 청소년에게서 보다 강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에 (Kandel et al, 1991) 청소년기 남성은 청소년기 여성보다 높은 약물남용율을 보였다(Johnston et al. 1994; Rich et al, 1992).

이러한 성별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

해주는 이론이 성강화 이론(gender intensification theory)으로 여기에서 청소년기의 여성성 관련 역할과 남성성 관련 역할의 채택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보다 높은 우울 증상이나 다른 대상에 대한 의존감이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보고식 청소년기 우울증에서의 성별차이는 여성 청소년은 보다 내향적인 증상 표현을 많이 보이도록 하는 반면 남성 청소년은 보다 외향적인 증상 표현 양상을 많이 보이도록 하는 사회화 과정과 사회 규범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Leadbeater et al. 1995). 결과적으로 여성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과 관련된 인격 특성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높은 우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따라서 이 이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내면화 증상(예, 우울, 고독 및 슬픔)은 더 많이 보임과 동시에 외면화 증상(예, 약물남용, 비행 및 폭력)은 보다 적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Leadbeater et al, 1995).

IV. 여성 청소년비행의 정신역동

이러한 여성 비행 청소년의 행동의 근

원은 비교적 일관된 역동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복합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양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비행 청소년의 기저 역동은 단지 청소년기를 특징짓는 갈등의 증폭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여성 비행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내적 투쟁은 성숙을 향한 본능적 힘과 유년기 의존 상태의 유지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성숙과 퇴행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으며 사춘기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잠재되어 있던 갈등 또한 다시 눈을 뜨게 된다. 갈등해결의 한쪽 끝은 모성에 대한 유년기적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다른 한쪽 끝은 여성성을 갖춘 한개체(feminine sexual person)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여성 비행 청소년의 또 다른 두 번째 투쟁은 병적 가정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하는 시도이다. 여성 비행 청소년의 가정 환경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일부 여성 비행 청소년의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 아동학대자이거나 또는 근친상간이 우려되는 또는 실제 근친상간이 발생한 가정출신이었으며 이들은 또한 그러한 가정의 속

최양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어떤 경우에 이는 명백히 의식적이며 정당하게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 이러한 생각은 무의식적이며 양가적일 수 있다(김현수 등, 1995).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들과는 달리 딸이 비행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들을 포기하고 싶어하며, 이러한 생각은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만들게 된다. 부모의 이러한 바램 또한 무의식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뿌리는 이미 오랜 시간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딸 모두에게 죄책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부모에게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서 크게 위배되는 것이며, 자식의 경우 가정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는 일차적 집단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 비행청소년의 비행행동은 일종의 방어기전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이들의 비행행동은 다양한 시도-애석하게도 대부분이 병적인 - 에 의하여 자신의 외적 환경을 통제(control)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

도는 여성 비행 청소년에게는 일종의 방어수단일 수 있으나 치료자에게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의 근원은 그들에게 엄청난 불안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내적 혼돈과 변화무쌍한 주변 환경에서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 비행 청소년은 통제라는 방어를 사용하게 된다. 종종 비행 청소년의 가정 환경은 매우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남긴 채 가정을 떠나게 될 수 있다. 이들 여성 비행 청소년의 임신 또한 하나의 조정(manipulation)이 될 수 있다. 임신은 임신한 비행 청소년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임신은 이들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 또한 변화시키게 된다.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매우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신의 딸을 통제하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부모-자녀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 여성 비행 청소년들의 임신에 대한 주요 동기는 무의식적인 것으로 이를 규명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V. 여성 청소년 비행 관련 문제

1. 가출

청소년 비행행동 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 비행청소년의 두드러진 비행행동 유형은 가출이라 할 수 있다. Ambrosino(1971)의 보고에 따르면 1969년 17세 이하의 가출 청소년 중 대략 50% 정도가 여성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경향은 그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유년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이며 이들은 성장 후 이러한 성적 학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시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대부분 또 다른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 청소년에게서 가출은 보다 심각한 비행행동의 온상이 되고있다(Kim, 1998). 대부분의 경우 이들 가출청소년에 대해 관계당국이 하는 일은 그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가 최우선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는 가출의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수가 1990년에는 6,984명, 1991년에는 10,500명, 1992년에는 11,008명, 1993년에는 9,235명, 1994년에는 11,363명, 1995년에는 21,517명 그리고 1996년에는 21,156명으로 1993년을 제외하고 청소년 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1998).

이들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공장, 주유소, 레스토랑, 기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취업은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불법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법적 취업이라 할지라도 임금착취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기회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이미 가출하여 제도권 교육에서 떨어진 이들은 배움의 터를 잃음으로써 취업 등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되며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들에게 두번째 심각한 문제는 아마 건강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출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무면허자의 불법치료행위나 불법시술은 이들 청소년에게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들 가출청소년의 77%가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같은 처지인 또 다른 가출청소년 친구라는 답변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Kim, 1998).

2 성폭력

여성에게 대한 성폭행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강간, 성적추행, 성기노출 등이 대표적인 성폭력에 속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여성은 다양한 성적 유희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가출 여성 청소년

년이나 비행집단 가담 여성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성적 행동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공황, 공포, 무력감, 자살사고 등을 겪게되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가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1992년 4월 경찰청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인구 10만 명 당 8-9명으로 세계 3위임을 발표하여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강간사건의 신고율을 2.2%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성폭력 및 강간피해자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폭력의 위협도 매우 다양하여 강간이나 윤간, 성적추행이 외에도 성적희롱, 음란전화, 대중매체나 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성적 폭행과 폭언 등의 직접적 피해 혹은 잠정적 위협의 피해 속에서 살고 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이경자, 1992)를 보면 총 피해 166건 중 만 9세 이하의 아동이 9%, 만 10-14세가 16%, 만 15-19세가 25%, 만 20-24세가 28.2%, 만 25-29세가 16%, 30세 이상이 5.8%등으로 나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성폭력피

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3. 성병

인간의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인간의 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한 성생활이란 건강한 삶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성병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병가능하나 특히 성적 호기심과 성적 에너지가 증대하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병의 감염경로, 증상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오늘날의 성 개방 풍조는 성 관련 질환에 대하여 거의 무방비상태로 청소년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독이나 임질과 같은 대표적인 성병은 발병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된다. 치료의 시기를 놓쳤을 때 매독균은 수년이상 체내에 매복하고 있다가 심장, 척수, 뇌와 같은 주요 장기를 침범할 수 있으며 임균은 남녀 모두에게 불임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

저울 수 있으므로 성병 예방·증상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 성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중에서 성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단지 10%내외에 불과하다고 하며 최근 미 공중보건성(U.S. Public Health Service) 자료에 의하면 보고된 성병 감염자 중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정확한 통계 보고는 없으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의 성병감염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세건강을 책임져야 할 여성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응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들도 점차 성병과 성병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건강, 복지, 도덕적 차원 및 법적 차원 등 여러 관점에서 이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김현실, 1998).

4 임신 및 낙태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청소년이 당면한 성문제로 청소년의 성 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성병의 증가추세와 피임방법을 잘 몰라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임신율의 증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임신 실태와 관련된 연구보고에 의하면 1986년 WHO가 지적한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1990년대 미국의 50개 주에 거주하는 청소년 여성의 임신율, 인공유산율 및 출산율을 1980년대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Spitz et al, 1993;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199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 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임신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십대 여성들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아직 미숙하고 모성으로써의 책임감이 부족함으로 이들의 임신경험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

달과제 중 하나인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줄뿐 아니라 신체적 측면에서도 임부와 태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십대 여성의 임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국질병 관리소(CDC)는 1985년에서 1990년까지 십대들의 임신과 관련하여 소모된 의료비가 1,203만 불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pitz et al, 1993). 이와 같이 십대들의 임신, 출산 및 낙태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5. 흡연 및 약물남용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 흡연 및 약물남용 인구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여성 흡연 인구의 증가율은 조만간 남성 흡연인구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흡연에 대한 역학조사(남정자, 1997)를 보면 1995년 우리 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5.0%로 1989년의 3.9%보다 증가한 반면, 남성의 흡연율은 1995년 67.7%, 1989년에 70.8%로 나타나 남성의 흡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나 여

성 흡연인구는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이미 청소년기부터 흡연을 시작한 기존의 흡연인구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흡연을 시작하였거나 앞으로 흡연을 하게 될 잠정적 흡연인구까지 고려할 때 실제 흡연여성은 보다 많을 수 있다. 청소년기 또는 미혼 여성의 흡연 및 약물남용은 많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흡연 및 약물남용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산율이 30%나 높고, 주산기 사망률도 26%나 높으며 특히 임신 중 모체의 흡연은 저 체중아 출생, 영아 돌연사 증후군, 선천성 기형, 호흡기 질환, 신생아의 성장 및 발달 장애와 관련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최연순 등, 1994). 특히 오늘날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대생 흡연과 청소년기 약물남용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여대생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조기성인기의 전 단계로 정체성 확립과 함께 모성으로써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적극적 자기 관리를 통해 여성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건강 관리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실, 2001)에서는 청소

년의 음주·약물 남용율은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음주·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음주·약물남용이 남성 청소년의 비행 보다 여성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약물남용과 여성 청소년 비행 및 폭력간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었다.

VI. 교정 및 대책

비행청소년에 대한 간호중재는 오늘날 소아·청소년 정신과 영역의 임상간호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학교보건 영역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도 중요한 도전이며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치료적 관계 구축

치료적 관계란 청소년의 자아의 성숙에 필요한 힘을 스스로 갖도록 해주는 토양으로 간호중재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적 관계 내에서 치료자는 비행청소년과 가족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도록 돕게 된다.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치료자

는 높은 자아인식의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소통술등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비행 청소년은 여성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보다 교정적 체험이 가능할 수 있다.

2. 감독

이는 청소년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과연 그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환경인지, 또는 별도의 통제나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탐색의 과정이다.

3. 자존감 구축

비행 청소년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그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역점을 둔 것 이어야 한다. 치료자는 이들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다거나 명령하기 보다 스스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다.

4. 역할모델

비행청소년을 돕는 사람들은 모두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인의 모델로써 비쳐져

야 한다. 특히 치료자는 탁월한 의사소통술과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비행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대하여야 하며, 오늘날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많은 간호사나 여성치료자들은 여성 비행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

5. 교육

치료자는 성장 및 발달, 성교육, 자녀양육방식, 약물남용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 등에 대하여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6. 환경제한

이는 비행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전략으로 그들의 주변환경을 효과적으로 제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요시 이들 비행 청소년들은 입원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행동형상을 위한 계약(협상),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 등도 효과적인 환경제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7. 사회기술개발

비행 청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문제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기술 영역으로 Goldstein 등(1980)은 초급사회기술(남의 말 경청하기, 대화 지속하기, 질문하기, 감사표현하기, 자기 소개하기 등), 중급사회기술(도움 청하기, 함께 공유하기, 타인을 교육하거나 자신이 교육받기, 사과하기, 설득하기 등), 느낌을 다루는 기술(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기, 애정 표현하기, 타인의 분노에 대처하기 등), 분노를 다루는 기술(협상하기, 자기통제하기, 자신의 권리주장하기, 논쟁을 피하기 등), 스트레스 대처기술(호소하기, 당혹감을 다루기, 어려운 대화에 대비하기, 집단의 압력에 대처하기, 상반되는 견해에 대처하기 등), 계획기술(자신이 할 일 정하기, 문제 규명하기, 목표설정하기, 정보수집하기, 결정하기, 과제수행에 집중하기 등)등을 제시한바 있다.

8. 인지기술 개발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정보사회에서 높은 인지기술은 능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요소이다. 특히 자신의 문제를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비행 청소년에게 인지기술 훈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는 문제의 원인 결정, 문제의 심각성 결정, 정보수집, 의사결정 등의 일련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술등을 포함한 지적능력의 습득과정이라 할 수 있다.

9. 대응기술개발

비행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나 문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중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므로 우선 자신의 사고와 느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아인식 능력, 자존감, 내·외적 통제위와 충동조절력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10. 가족관계기술 개발

청소년 문제는 항상 가족문제나 가족

원간의 문제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의 가족원은 각기 가족원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비행청소년의 경우 우려되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하여 치료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11. 성상담 및 성교육

남성 비행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여성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이상에서 기술한 성병, 임신, 낙태 등의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담과 교육적 중재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Ⅷ. 맺음말

청소년 비행행동의 원인 요인이 복합적, 다차원적이듯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간단한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비행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법령의 강화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관련 법규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는데

이중 어느것도 비행, 가출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는 비행이나 가출여성 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들 비행, 가출청소년을 매춘여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단지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정신적 부적응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진 것이 없다. 따라서 관계 부서 차원의 여성 청소년 비행 발현율, 여성 청소년 비행행동의 특성, 비행행동화 과정에서의 성차 규명을 통하여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련 전문인의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비행 및 가출에 대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 청소년 자녀의 부모, 교사들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변화과정을 세밀히 관찰함과 더불어 그들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선도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지도를 위한 연구 및 개발계획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비행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에서의 탈락을 예방해주고 폭력행동을 조정해주며 사회성 개발을 위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회관 등이 시나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 육성법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80). 청소년백서. 서울, 국무총리기획조정실.
- 김헌수, 민병근(1995). 청소년이 지각한 근친상간의 가족역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 6(1):56-64.
- 김현실(1998). 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학

- 교보전 통권 제21호, pp.56-68
- Beacon Press.
- 남정자(1997). Life specific well woman health care : Comprehensive approach. 대한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학술대회, 3-36.
- 법무연수원(1994). 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pp.27-170.
- 이경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0(4):5-44. 한국여성개발원.
- Berman AL, and Jobes KA(1991).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영남일보사(1999). 영남일보, 4. 7. 27면
- Brennan PA, Raine A, Schulsinger F, Kirkegaard-Sorenson L, Knop J., Hutchings B., Rosenberg R, & Mednick SA(1997). Psychophysiological protective factors for male subjects at high risk for crimin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6):853-5.
- 지역뉴스(대한매일사)(1999). 대한매일, 5. 22.
- 최연순, 장순복, 조희숙, 최양자, 장춘자, 박영숙, 이남희(1994). 모성간호학(제3판). 수문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범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mbrosino L(1971). Runaways. Boston, Briggs F, Hawkins RM(1996). A comparison of the childhood experinces of convicted male child molesters and men who were sexually abused in

- childhood and claimed to be non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20(3):221-33.
- Bjerregard B, & Smith C(1993). Gender differences in gang participat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 329-55.
- Campbell A(1991). *The girls in the gang*(2nd ed.). Oxford, UK: Basil Blackwell.
- Capaldi DM, Crosby L, & Stoolmiller M(1996). Predicting the timing of first sexual intercourse for at-risk adolescent males. *Child Development* 67(2):344-59.
- Chesney-Lind M(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Thousand Oaks, CA: Sage.
- Chesney-Lind M, Shelden RG, & Joe KA(1996). Girls, delinquency, and gang membership. In C.R.Huff(ED), *Gangs in America* (2nd ed., pp. 185-204). Thousand Oaks, CA: Sage.
- Cohen MI, Williams K, Bekelman AM, & Crosse S(1995). Evaluation of the national youth gang drug prevention program. In M.W.Klein, C.L.Maxson, & J.Miller(Eds.), *The modern gang leader* (pp.266-275). Los Angeles: Roxbury.
- Cox RP(1996). An exploration of the demographic and social correlates of criminal behavior among adolescent 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1):17-24.
- Curry GD(1998). Female gang invol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100-118.
- Curry GD, Ball RA, & Fox RJ(1994). *Gang crime and law enforcement record keeping*. Research in brief.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 Daley M, Argeriou M(1997).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needs of sexually abused pregnant women in drug rehabilitation. *The Massachusetts*

- MOTHERS Projec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4(2):191-6.
- Department of Justice.(1996).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5*. Washington, DC:Author.
- Deschenes EP, & Esbensen F.-A.(1999). Violence and gangs: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53-96.
- Deykin EY, and Buka SL(1994).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chemically dependent adolescents. *Am. J. Public Health*, 84:634-639.
- Draucker CB(1997). Early family life and victimization in the lives of wom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5):399-412.
- Esbensen F.-A., Deschenes EP, & Winfree LH(1999). Differences between gang girls and gang boys-Results from a multisite survey -. *Youth and Society* 31(1):27-53.
- Esbensen F. -A., & Huizinga D(1993). Gangs, drugs, and delinquency in a survey of urban youth. *Criminology*, 31, 565-589.
- Esbensen F. -A., & Huizinga D, & Weiher AW(1993). Gang and non-gang youth:Differences in explanatory variable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9, 94-116.
- Esbensen F.-A.,& Winfree LT,Jr(1998). Race and gender differences between gang and non-gang youth: Results from a multi-site survey. *Justice Quarterly*, 15, 505-526.
- Esperat MC, & Esparza DV(1997). Minority adolescent mothers who reported childhood sexual abuse and those who did not : perceptions of themselves and their relationship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8(3):229-46.
- Fleisher M(1998). *Dead end kids : Gang girls and the boys they know*. Madison: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ox JA(1996). Trends in juvenile violence: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 on current and future rates of juvenile offending. Washington, DC:Department of Justice.
- Goldstein A, Sprafkin R, Gershaw J & Klein P(1980). Skillstreaming the adolescent, Champaign III. Research Press.
- Goldstein AP, & Glick B(1994). The prosocial gang : Implementing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Thousand Oaks, CA:Sage.
- Haapasalo J, Tremblay RE(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s 6 to 12 :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5) : 1044-52.
- Huizinga D(1997, February). Gangs and the volume of crim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Society of Criminology, Honolulu, HI.
- Huizinga D & Esbensen F.-A.(1991, November). Are there changes in female delinquency and are there changes in underlying explanatory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San Francisco, CA.
- Joe KA & Chesney-Lind M(1995). Just every mother's angel : An analysis of gender and ethnic variations in youth gang membership. Gender and Society, 9, 408-430.
- Johnston LD, O' Malley PM, and Bachman JG(1994).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3. Volume 1 : Secondary School Students.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Rockville, MD.
- Johnston LD, Backman JG and O' Mally PM(1985). Use of licit and illicit drugs by America's high school students 1975-1984(DHHS Publication No. ADM85-1394).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Kandel DB, Raveis VH, and Davies M(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 Youth Adolesc.* 20:289-309.
- Kim SK(1998). A study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for runaway girls in Korea. *Women's Studies Forum* vol 14, Korea 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 Klein MW, & Crawford LY(1995). Groups, gangs, and cohesiveness. In M.W.Klein, C.L. Maxson, & J.Miller(Eds), *The modern gang reader*(pp.160-167). Los Angeles:Roxbury.
- Lees S.(1993). *Sugar and spice:Sexuality and adolescent girls.* New York:Penguin.
- Leadbeater BJ, Blatt SJ, and Quinlan DM(1995). Gender-linked vulnerabilities to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 Res. Adolesc.* 5:1-29.
- Lees S(1993). *Sugar and spice : Sexuality and adolescent girls.* New York : Penguin.
- Luster T, Small SA(1997). Sexual abuse history and number of sex partners among female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9(5) : 204-11.
- Miller J(1998a). Gender and victimization risk among young women in gang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429-453.
- Miller J(1998b). Up it up: Gender and the accomplishment of robbery. *Criminology*, 36, 37-66.
- Modestin J, Berger A, & Ammann R(1996). Mental disorder and criminality, male alcoholism.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84(7):393-402.
- Nolen-Hoeksema S, and Girgus JS(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 Bull.* 115:424-443.

- O'Donnell J, Hawkins JO, & Abbott RD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3(4):529-37.
- Palinkas LA, Atkins CJ, Noel P, & Miller C (1996).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adolescent women in drug treatment research. *NIDA Research Monograph* 166:87-109.
- Paris J, Zweig-Frank H, Bond M, & Guzder J (1996). Defense styles, hostility, and psychological risk factors in mail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84(3):153-8.
- Patton GC, Hibbert M, Rosier MJ, Carlin JB, Caust J, and Bowes G (1996). Is smoking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teenagers? *Am. J. Public Health* 86:225-230.
- Pine DS, Wasserman GA, Copan J, Frideo JA, Huang YY, Kassir S, Greenhill L, Shaffer D, & Parsons B (1996). Platelet serotonin 2A(5-HT_{2A}) receptor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factors for boys at risk for delinquency : a preliminary repor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4):538-44.
- Raine A, Brennan P, Mednick B, & Mednick SA (1996). High rates of violence, crime, academic problems, and behavioral problems in males with both early neuromotor deficits and unstable family environm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6):544-9.
- Rich AR, Kirkpatrick-Smith J, Bonner RL, and Jans F (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Suicide Life-Threat. Behav.* 22:364-373.
- Schuckit MA, Smith TL (1996). An 8-year follow-up of 450 sons of alcoholic and control subjec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3):202-10.
- Sickmund M, Snyder HN, & Poe-Yamagata E (1997). Juvenile offenders

- and victims:1997. Update on violence. Washington, DC:Department of Justice.
- boys in school. New Brunswick, NJ:Rutgers University Press.
- Spergel IA(1995). The youth gang problem.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Thorne B, & Luria Z(1986). Sexuality and gender in children's daily world. *Social Problems*, 33, 176-190.
- Spingarn RW, DuRant RH(1996). Male adolescents involved in pregnancy : associated health risk and problem behaviors. *Pediatrics* 98(2 pt 1):262-8.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3). Teenage pregnancy and birth rates in United States, 1990. *MMWR* 42(38). 733-736.
- Spitz AM, Ventura SJ, Koonin LM, Strauss LT, Frye A, Heuser RL, Smith JC, Morris L, Smith S, Wingo P & Marks JS(1993). Surveillance for pregnancy and birth rates among teenagers, by State-United States, 1980-1990. *MMWR* 42(SS-6), 1-27.
- Winfrey LT, Jr., Backstrom TV, & Mays GL(1994). Social learning theory, self-reported delinquency, and youth gangs: A new twist on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6, 147-177.
- Swanson JW, Linskey AO, Quintero-Salinas R., Pumariega AJ, and Holzer CE(1992). A binational school survey of depressive symptoms, drug use, and suicidal ideat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 31:669-678.
- Zimmerman MA, Salem DA & Maton KI(1995). Family structure and Psychosocial correlates among urban African-American adolescent males. *Child Development* 66(6):1598-613.
- Thorne B(1993). *Genderplay: Girls and*